

김효진 "조혜련과 서경석 짝사랑...PD에게 혼났다"

등록 2026.05.19 09:38:25



[서울=뉴시스] 김효진. (사진 = tvN STORY '남겨서 뭐하게' 캡처) 2026.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코미디언 김효진이 과거 서경석을 두고 조혜련과 신경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18일 방송된 tvN STORY '남겨서 뭐하게'에는 서경석과 김효진이 출연했다.

이날 김효진은 서경석과 합을 맞춘 1990년대 인기 코너 '울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김효진은 "사실 과거 서경석 씨를 남몰래 짝사랑했다"고 고백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는 "저도 몰랐는데 조혜련 씨도 서경석 씨를 좋아하고 있었다. 둘 다 좋아했다"고 회상했다.

김효진은 서경석의 매력을 묻는 질문에 "그때만 해도 남자 개그맨 선배들이 농담도 거칠게 했다. 그중에 서경석 씨는 너무 켜들하고 신사적이었다. 늘 인격적으로 후배들을 대해 줬다"고 답했다.

김효진은 "'울엄마'는 1970년대 판자촌을 배경으로 했다. 얼굴도 검은색으로 칠하고 옷도 늘어져 있는 옷을 입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조혜련의 화장이 환해졌다"며 "상의도 점점 너털너털한 옷에서 라인이 드러나는 파인 옷으로 바뀌더라"라고 했다.

그는 "나도 점점 주근깨를 지우고, 포니테일로 묶고 그랬다"며 "그러다 결국엔 조혜련과 같이 담당 피디님한테 끌려가서 '너희 분장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혼이 났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